2021년 4월 18일 (백) 부활 제 3 주일 NO.1257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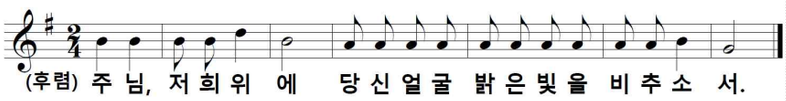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lskc.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사도 3,13-15.17-19

[화답송] ····· 시편 4,2.4.7.9.(◎ 7ㄷ)



○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저를 구해 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지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 주신다. ◎

[제2독서] ····· 1 요한 2,1-5ㄱ

[복음환호송] ····· 루가 24,32 참조

◎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음] ····· 요한 20,19-31

[성가안내]

- 입당성가 [1] 나는 믿나이다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166] 생명의 양식
- 파견성가 [138] 만왕의 왕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종화 필립보 가족
김화자 소화데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김영숙 카타리나
카타리나	김경옥
한영호 시메온	한정민 젬마
강마리아와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김경련 율릿다

생미사	봉헌
민사현 베드로, 민사룡 가브리엘	민덕미 안젤라
김정숙, 정우근	민덕미 안젤라
이경자 율리안나, 이루리 모니카	익명
박수진 줄리아 (생일)	양미숙 마리아
이종환 토마스 아퀴나스	조남록 미카엘
안선정 마리안나	울뜨레아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4월 18일	백이백 아오스딩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민완준 필립보	안선정 마리안나
4월 25일	박기웅 사도요한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영숙 카타리나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오늘의 묵상

-사도 3,13-15.17-19, 루가 24,35-48 -

주제 : 복음을 믿고 따르는 어려움

사람의 삶에는 옳고 바르게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옳게 여기는 것은 계속되어야 할 일이고, 옳지 않은 것은 바뀌어야 할 일입니다. 다양한 일을 만나면서, 사람은 자신의 귀로 듣고 따르는 내용이 옳고 바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내용에 따라 신념이 있다고 여길 것인지, 고집을 부린다고 할 것인지 표현은 다르지만, 사람의 삶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얼마나 옳다고 여기십니까? 옳다고 여긴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는 뜻도 될 수 있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특별한 일을 하신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때로는 질문이 많아도 응답을 얻을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대답을 얻을 수 없다면, 허탈하고, 허망하고, 내가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살아야 하는지를 질문하겠지만, 그 대답도 얻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을 싸움이라고 설명하면, 그 신앙을 충실하게 지키고 드러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기 주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무슨 힘으로 큰소리를 쳤을까요? 그렇게 선포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돌아온다고 생각했을까요? 보장과 확증은 없는 세상에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살았을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일에 부딪혀보자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을 살피는 일입니다.

베드로사도가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은'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죄가 지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누가 지울 수 있는지 주체로 나온 표현은 없습니다만, 사람이 자기 삶을 돌이킨다는 것은 죄가 삶에서 지워지게 하는데 중요한 조건입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구운 생선을 받아 드시는 모습으로 당신의 부활을 실증하셨지만, 그 모습을 보고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는지 사람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명의 제자가 전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이 참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다음의 일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위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렇게 시작된 구원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을 실천하는 것인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대교구 주보에서-

[2021년 4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복음화 지향 : 기본권

독재 정권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에서도, 기본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Nest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NEW WONJO 원조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영성의 향기 – 성 베네딕도 13]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7장 계속 -

겸손에 대하여

겸손의 첫째 단계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늘 눈앞에 두어 잠시도 잊지 않으며,
하느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늘 기억하여
하느님을 경멸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지옥불에 태워지며, 또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마련된 영원한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신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시간 죄와 악습에서,
즉 생각과 혀와 손과 발과 자기의 뜻과 육체의 욕망에서 자신을
지킬 것이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천상으로부터 매시간 항상 자신을
내려다보시고, 자신의 행동을 하느님께서 어디서나 살펴보시며,
또 천사들이 매시간 보고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것이다.

예언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 생각 가운데 늘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밝혀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콩팥을 살펴보시는 하느님"이라
하시고, 또 "주께서는 사람의 갱각을 아시나이다" 하셨으며,
다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내 생각들을 멀리서부터 아시나이다"
하시고, "사람의 생각은 당신에게 밝혀지나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쓸모있는 형제는 자신이 그릇된 생각을 할까 조심하여
마음속으로 "내 허물에서 나를 지켜
나는 주님 앞에서 무결하게 되었나이다."라고 늘 말해야 한다.

성서는 우리에게 "네 뜻으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중에 하느님께
간구하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 때 우리의 뜻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배우게 될 것이니,
"사람들에게는 옳게 보이는 길들이 그 끝은 지옥의 깊은 곳까지
빠진다"고 하신 성서의 말씀에 유의하며,
또 경솔한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은 자기 뜻 때문에 부패하고
흉하게 되었다"고 하신 성서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이다.

[성사 안내]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야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 (FYMNY)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정영도 노의선

일년일독 성경 통독을 위해 날마다 15분, 정해진 분량을 읽어보세요.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미사참석 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 **세례성사**
오늘, 4월 18일 세례성사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3 자매들입니다.
-김나람 클라라(8/11), 이미림 데레사(10/1), 정희정 세라피나(9/29)

● **사목 협의회 :**
다음 주일, 4월 25일 미사 후 사목 협의회의 있습니다.
사목 위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꾸리아 줌 미팅 :**
오늘, 4월 18일 오후 1시 '은총의 샘' 꾸리아 줌 미팅 있습니다.
모든 프레시디움 단원들과 협조단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미팅 ID : 812 7711 9634
패스워드 : CODZ 7336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